

## 제4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 의 장 선 거 소 건 발 표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부터 제4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의원님들의 소견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시겠으며 발표 시간은 한 분당 1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식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제4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자기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을 열띤 찬반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음은 제 마음 속에서 늘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훌륭한 젊은 의원들의 폭넓은 지식과 노력으로 열악한 지방자치제도 안에서도 그나마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의 사안이 발생했을 시 대처하는 능력이나, 예를 들면 수인선 전철 지상화 반대특위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목적의 사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 덕택에 의회 위상 정립에 한 몫 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 견제만이 시민에게 유익한가 적당한 협력이 시민에게 유익한가는 피차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송진섭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적극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는 인정하며 사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순간 순간 발생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전개는 그 대처하는 것이 모든 의회의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대처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원의 명예직 삭제나 유급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어낸 결과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건널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참으로 그런 쪽으로 용케도 잘 지켜낸 저의 의정활동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화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급직으로의 전환, 지방분권의 필수적

사항인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등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산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대표성의 확립과 모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위상 구현에 앞장서는 훌륭한 의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창의적 권고에 적극적 수렴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 많은 산적되어 있는 사안들의 감당을 위해서 경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전반기를 의장 했으면 됐지 후반기까지 하려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한 답변은 경륜이 필요한 때임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못 다한 일들 제가 의장이 다시 되어서 앞장서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은 수렴하고 저의 부족한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제4대 안산시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리라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의장 출마의 소견을 줄여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음은 장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년 4월 15일 초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개막한 후 벌써 13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아쉬움도 있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의 첨단이라는 사회변화를 촉진시키고 요원하게만 여겼던 참여민주주의와 지방분권도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변화의 물결이 국가중심에서 도시중심으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안산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정확한 판단으로 빠른 속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친숙한 의회 위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도 후반기에는 좀더 내실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후반기 의정방향은 의회 내부적인 개혁과 외부적인 개혁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전반기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특히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실제로 느끼고 바라는 몇 가지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개인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 사무실에서 5,6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만 환경적으로나 의정활동을 추진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는 개인 사무실 설치 공간이 충분히 있어 어렵지 않다고 보며 타 시군의회에서도 이미 개인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개인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민원 상담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팀을 구성하여 의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문 홍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전체 의원과 직원의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의 연구활동 및 의원보좌를 위해 전문가, 교수, 또 저명인사 등 강사를 초빙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중점 거론되는 사안이나 향후 처리할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슈 발생시 의회 홈페이지나

인터넷, 또 ARS 등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의정참여를 유도해 감으로써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의원이 만족하는 의정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전체 의원 설문조사 및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개선 등 조정안을 마련하여 모든 의원이 함께 하는 의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타 시군의회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의회 참여의 교류를 위하여 국내 타 시군의회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인적, 물적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시군의회가 우호증진뿐만 아니라 선진의정을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의원 입법활동이나 지원강화, 신속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 인터넷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대 전반기에서 추진한 모의의회, 의회방청, 토론회 정착, 집행부와 의 간담회 등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의회운영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활동, 견제와 감시, 현장활동 등 의회의 고유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안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갖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열

과 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하며 의원 여러분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상으로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